

강한 인내력과 진리로 무장된 사람은 하나님이 다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분신인 이슬 감로를 받으면 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승리제단에 나오면 제일 먼저 마음의 변화가 옵니다

우리 승리제단에 나오면 마음이 변화가 옵니다. 옛날에는 화도 잘 나고 신경질도 잘 내고 했는데 이 제단 와서 은혜 받고부터는 신경질도 안 나고 화도 나지 아니하고 자존심도 나오지 않는 변화가 옵니다. 마음의 변화가 오는 것이 바로 은혜의 역사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오지 않는 것은 비진리요, 마귀의 영인 고로 변화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점점 변화합니다. 이 마음의 변화가 오지 않으면 그것은 마귀 종자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입은 사람은 바로 마음의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체험은 처음에는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온 몸이 뜨겁고 등이 못 견딜 정도로 뜨거운 것을 느끼면서 코로는 종이 타는 냄새가 납니다. 마귀가 불성령의 불로 소멸되는 고로 죄가 타는 냄새가 종이 타는 냄새와 같은 누렁내가 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생수연결이 됩니다. 입안서부터 뱃속까지 찬물이 내려가는 것처럼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몸이 가벼워집니다.

예배 보는 동안 향취냄새가 납니다. 백합화 꽃냄새가 나는데 이것을 향취냄새라고 하고 이슬성신의 냄새라고 합니다. 향취냄새가 이슬성신의 냄새인 고로 이슬성신이 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보통 사람들은 종종 정욕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슬성신을 받으면 마귀가 죽는데 정욕, 음란의 마귀가 제일 먼저 죽는 고로 정욕이 일어나려야 일어날 수 없는 체질이 옵니다. 그때에는 마음 길로나 눈 길로나 입술로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도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경지는 하늘의 사람이 약 70%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려야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경지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사람이 약 70%로 이루어졌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 제단은 체험의 제단이 아닙니다. 그런고로 변화가 일어나서 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 없는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입으려면 애를 쓰고 기를 써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성품을 입은 인간이 있는가 하면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마귀 종자의 인간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 종자의 인간은 대략 성품이 인내력이 전혀 없거나 변덕이 심합니다. 변덕이 심한 것은 마귀의 성품이므로 그랬다저했다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변덕이 일어나는 사람이거나 어떤 사람은 보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변덕이 일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일주일만에 한 번씩 변덕이 일어나고, 또 심한 사람은 이삼일에 한 번씩 변덕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같은 사람이나 마귀 종자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속성을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입은 사람은 전혀 변덕이 없고 바로 인내력이 강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인내력, 참는 힘이 없으나 자기의 마귀의 성품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변덕이 일어나지 않게끔 노력하면 변화가 됩니다.

격암유록에는 '이 마귀야, 마귀야 인간이 되어보렴. 인간이 되어서 너도 구원을 얻도록 하라.'는 말이 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구세주 조희성님

자기가 제아무리 음란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고 언젠가는 한동안 끊었다고 하지만은 다시 또 정욕이 자주 일어나서 범죄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귀가 할 수만 있는 대로 택한 자를 미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고로 그 마귀한테 끌려가면 결국은 지옥에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늘의 사람으로 완성이 되려면 이긴자를 거쳐서 완성자

가 되면 두 번 다시 마귀 사람으로 변화되려야 될 수 없는 완성된 자가 되는 고로 여러분들이 이긴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완성자가 되어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 길이 마음으로 투쟁하는 길이지, 이 길은 몸으로 투쟁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속사람의 성품이 마귀 짓을 하고 있는지 나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스

스로 알죠?

그러면 바로 마귀 짓을 하는 버릇을 빨리 뜯어고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옥을 꼭 갑니다. 그런고로 여러분들이 지옥을 안 가려면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성품자체가 인내력이 강한 성품인 고로 어느 정도 인내력이 강한 성품이나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육천 년간 마귀를 섬멸시키기 위해서 육천 년을 참고 기다리시면서 마귀 죽이는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내력으로 뭉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죠? 인내력으로 뭉쳐진 그 몸이 하나님의 몸이요, 그 변덕이 없는 변화가 없는 진리의 영인 고로 그랬다저했다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 매일 예배 보러 오라고 하는데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변덕부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2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마음도 갖춰진 사람은 하나님이 90%가 된 것

변덕을 안 부리고 매일 제단 나오면 하나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되도록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왔다면 거의 90%가 하나님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루나 이틀 이렇게 빠진 것은 마귀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빠지게 되고, 영생에 대해서 중요시 하던 마음이 없는 고로 당장 먹고 살 것에 치중을 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나중에 받아도 된다는 식의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매일 드리는 번제를 폐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려면 상당 기간 수십 년 동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매일 제단을 쌓아라. 하루도 빠지지 말아라." 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 2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왔으면 하나님의 인내력도 갖춰졌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마음도 갖춰진 것입니다. 변덕이 없는 마음, 그러니까 20년 동안 꾸준히 하게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나왔다면 하나님이 90%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긴자가 되고 완성자가 된 것은 인내력이 갖춰주고 진리의 마음이 갖춰진 고로 되어진 것입니다.

조석으로 마음이 변하는 사람, 아침 마음 다르고 저녁 마음이 다른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세상에서는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단은 매일 번제를 드리는 제단이요, 이 제단은 이랬다저했다 변덕부리는 제단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일요일 날 노는 날이 있고, 쉬는 날이 있지만 우리제단에서는 언제 한번 쉬는 날이 없습니다. 언제 한번 예배 안 보고 쉬라고 하는 날 없었습니다. 생활이 그 날이 그 날이고 늘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그날이 그날이고 이제 백 날, 천 날 가봐야 만 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되려면 백날 매일 나오다가 하루만 빠져도 마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루 빠지는 것이 6개월이 지연된다고 했습니다. 6개월이 지연된다는 것은 하루 빠지면 6개월 동안 마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면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와야 구원입니다.

이 세상 사람 가운데에는 직장에 나가도 한 일주일만 근무하면 싫다고 하고 나와 버리고 또 다른 직장을 들어가면 들어간 일주일만 되면 또 싫다고 또 나와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을텐데 그런 사람이 바로 마귀 종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천당 못가고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2001년 8월 15일 말씀 중에서



인간으로서 죄와 상관없이 산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

하루하루 눈길로나 입술로나 마음으로 죄짓지 않는 의로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몸부림쳤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고도로 긴장된 상태에서 자신의 마음과 치열한 싸움을 벌였던 것이다

밀실 안에서의 일거수일투족은 죄와 상관없는 의인으로 키우기 위한 연단의 장소였다. 그때 나이 47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살 만한 처지에 놓여 있었기에 이제는 '조금 고생 안 하고 살려나' 하는 참내에 밀실에서 부름을 받아 들어왔던 것이었다. 수십 년 동안 막일을 하지 않고 사업만 하고 살아왔던 사람이 밀실에서 매일 같이 땀을 범벅으로 흘리며 중노동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하루하루 눈길로나 입술로나 행동으로 죄짓지 않는 의로운 생활을 하기 위한 몸부림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도로 긴장된 상황이었다.

나와의 싸움에서 지게 되니 좌절감이 왔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오랜 세월 장교 생활을 한지라 걸음걸이가 이런 일반 사람과는 달리 품위와 절도 있게 걷는 버릇이 있었다. 해와 주님께서 이를 보시고 "저 우쭐한 음란마귀에 빠진 마귀 뿌리째 뽑아서 무지함" 하시며 우쭐한 음란죄를 졌다고 막 야단을 하

셨다. 또 세상에 버리고 들어온 가족과 회사를 염려하니, "뒤돌아보는 음란죄에 걸려 넘어졌다"고 막 야단을 하시고 욕을 하시기도 하였다. 이러한 나날이 하루 이틀이지 일 초 일 초가 몸서리 쳐질 정도로 죄에 걸려 넘어질까 안절부절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한번은 '나는 아무리 해도 이길 수 없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께 점령당할 수 없는 괴수죄인이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어렵게 해와주님께 "이 사람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으니, 이 사람이 존경하는 신앙의 동지인 최수영 전도사를 데려다 키워 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하고 제의했지만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이었다.

해와 주님은 이 사람 말고도 이긴자 후보를 찾기 위해 이사람 저사람 전도해서 밀실로 계속 불러들이셨다. 어떤 감리교 목사를 데려다 키워보시기도 하고, 또 장로교 총신대학 대학생을 데려다 키우시면서 그 애인까지 불러서 옆에 두고 키워 보시기도 하였다. 그리고 전도관에서 신앙이 좋다는 유



최수영 전도사를 밀실로 불러들이기 위해 콜라를 마시면서 전도하였지만...

장로 등, 그 외 여러 사람을 이 사람이 보는 앞에서 키워보셨던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조금만 힘이 들면 사소한 자존심을 죽이는 아주 낮은 단계의 시험과 연단을 견디지 못하고 조금 지내다가는 급세 도망치는 것

이었다. 해와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일련의 시험과 연단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아니면 그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해 낼 수 있겠느냐는 분발심과 사명감 같은 암시를 주면서 계속 열심히 매진하라

는 느낌을 주셨다.

그러나 이 사람 스스로가 자주 자책 지심이 되어 나는 안 될 것 같이 생각되는 고로 6개월간 조르고 졸라서 드디어 "최수영 전도사를 전도해 봐."라는 허락을 받아냈다. 최수영 전도사는 전도관에서 들도 없는 막역한 사이였다. 이 사람이 마귀로 낙인이 찍혀 모두가 외면하고 돌림배칠 때, 최수영 전도사만이 이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충정을 알고, 어느 전도관이나 지관으로 이관할 때마다 이 사람이 예배 볼 수 있도록 아꼈다는 배려와 보살핌을 베풀었던 그런 사이였던 것이다. 그런 최수영 전도사를 전하로 영모님의 섬은 뜻이 이긴자를 키우는 것이라고 성경 말씀과 과거에 영모님이 하시는 설교말씀을 들어 장황하게 설명하고 하나님의 뜻이 밀실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득하였다. 그리하여 부친 등기소 근처 모(某)창고 앞에서 플라병을 박스째 사다 놓고 마셔가면서 하루 종일 전도를 했다.

뒤레 나보고 밀실에서 나오라고

설득하는 최 전도사

이 사람이 최 전도사를 밀실로 데려가려고 열심히 전도를 하면서 "영모님께서 키우신 분이 틀림없는 해와이긴자야. 하나님의 뜻이 밀실에 있어!" 하는 등 여러모로 설득하려 하였으나, 뒤레 최 전도사는 "아니야! 그 사람은 천사마귀야! 영모님께서 분명히 천사마귀라고 하셨어! 어쩌다가 조형이 그 마귀 꾀임에 빠져 산속에서 고생을 하느냐? 참으로 안타깝다. 속히 나와라!" 하며 도리어 이 사람을 끌어내려고 회유했다.

둘이서 실랑이 벌이기를 하루 종일 하다가 도저히 되지 않아 허탈한 심정으로 해와이긴자를 보내, 해와 이긴자께서는 이미 내다보시고 "그것 봐, 안 되잖아!"라고 애담은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면에 '네가 열심히 해라! 네가 아니면 누가 이 험한 가시밭길을 갈 수 있겠느냐? 너는 할 수 있어!' 하는 암시를 강하게 느끼고 그때부터 또 더욱 열심히 매달리기 시작했다.*